데스크시각

정 재 현

U대회 광주 유치와 88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신고식이었다. 변방의 작은 분단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됐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유치에서 개최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올림픽 '3대 불가론(不可論)'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첫째 찬반 논란으로 '국민 화합'이 안 된다는 것, 둘째 북한의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 셋째 올림픽 기간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날씨'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88올림픽 국운 상승 토대

경기장을 건설할 재원이 없어 자칫 빚더미를 떠안고 자멸할 수도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정부 내에서조차 들끓었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권이 스포츠로 국민을 우민화(愚民化)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88올림픽 유치는 성공했고, '국운 상승'의 토대가 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엊그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광주가 지난 5월31일 2013년 U대회 개최지 결정에서 탈락한 지 꼭 114일 만이다.

박 시장의 U대회 유치 재도전 선언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재도전에 대한 지역 내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들은 광주시가 이미 실패한 2013년 U대회 유치 추진비용 등의 투명한 보고와 평가, 그리고 재도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도전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유치 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다. U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광주가 곧바로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진다는 환상은 위험하다. 현재 광주의 능력만으론 U대회 개최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U대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효과가 있느냐는 점도 따져 볼 문제다.

그렇다고 U대회 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광주가 언제까지 '우물안의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경쟁도시들은 이미 아시안게임, 세계엑스포, U대회 등 국제행사를 치렀다. 이들 도시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육상경기 등보다 큰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했거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쟁도시들은 국제무대에서 광주보다 2~3 걸음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U대회 개최의 경제적 직·간접 효과는 제쳐놓고라도 미래의 주역이 될 세계 120여개국 1만여 명의 대학생이 광주를 직접 체험하는 그 자체만으로 유·무형의 효과는 엄청나다. U대회는 광주가 국내와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 맛과 예향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유치의 성공 여부다. 또다시 유치에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지역민의 상실감과 책임 소재에 따른 극심한 갈등 등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다. 실패했을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수렴해야

U대회 유치의 성공 여부는 박광태 시장에게 달려있다. 유치 성공의 첫째 관건은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고, 그것은 박 시장 몫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140만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비판론자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하고 이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 반대론을 소수 의견이라며 무시한다면 분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시민 역량 결집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정치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광주시가 U대회 유치 재도전이라는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 적극적 비판도 U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안 제시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래야 광주가 2015년 U대회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의 기적을 2015광주U대회로 재현해 보자. 〈편집부국장〉 jhjung@

사설

정부, J프로젝트 '발목잡기' 노림수 있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J프로젝트)이 정부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기장을 포함한 삼포지구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됐고 삼호·구성·초송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두 차례 무산됐다.

J프로젝트 추진계획은 휘청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연내에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지만 전체 구상이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잇단 제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된 배경은 석연치 않다. 정부는 농림부 소유인 초송지구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전남도는 J프로젝트를 축소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정부가 J프로젝트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프로젝트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돼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새만금지구는 간척지 농지비율이 대폭 축소된 반면 J프로젝트는 간척지 양도·양수가 거부됐고 선도사업에서도 탈락했다. 전남도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J프로젝트에는 전남의 미래가 걸려 있다. 서남해안 일대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적극적 지원을 공약했다. 이런 사업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J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간척지 양수·양도를 거부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도 정부를 설득하고 계획을 철저히 정비해 발목을 잡히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 '호남 구애' 지역현안부터 챙겨라

한나라당이 '호남 껴안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호남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당의 발전 및 지방선거를 위해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인 호남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호남 껴안기'가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강재섭 전 대표도 공을 들여 왔다. 박희태 대표는 민심 탐방단을 꾸려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쳐 진정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 껴안기'는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당세를 확장하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호남 껴안기'를 애써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정의화 의원이라는 점도 기대된다. 정 의원은 부산 출신이지만 평소 호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얼마 전 '호남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정치보복이자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성토한 이정현 의원이 호남정서를 대변할 인물로 꼽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호남고속철도와 J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여수엑스포 등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사업을 포함, 광주·전남의 각종 현안사업은 예산과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다. 공약마저 지키지 못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고 호남에 대한 진정성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지원과 인재 영입 등 본질적 차원에서 호남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현안부터 챙겨 진정성을 입증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부장님 상봉기(相逢記)

부장님.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뵙고 처음이니 칠년 만인가요? 지금은 이름만 대면 일곱 살 아이들도 아는 중견기업의 부회장이시지만 제 기억에는 언제나 10여년 전 직장상사이자 선배이셨던 부장님. 더 지체 높고 영예로운 호칭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제게는 부장님이란 호칭이 훨씬 더 높고 존경스런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암수술을 받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시던 부장님을 모시고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건강보다 업무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더 걱정을 하시더데" 하는 못난 생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조차 다른 부서를 찾아 나선 엊그제, 길거리에서 우연히도 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여기 오실 일도 없으실 텐데, 제가 잘못 보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을 때 부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아직껏 10대 소년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문득 저보다 더 반가운 분이 뒤에 서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먼 길에서 돌아온 아우를 반기듯 어깨를 토닥여주시는 자상함은 퇴직하시기 전 그대로였고, 약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장에는 운전사도 없이 산간벽지를 누비시며 농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양곡·채소·축산·자재 어느 것 하나 바람 잘 날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에 그 작물을 생산한 농업인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제 무딘 가슴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게 되어있는 정년이지만 보장된 자리는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뿌리치듯 정든 직장을 떠나셨지요.

고향에서 올라오는 인편에 간간히 부장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변치 않는 농업 · 농촌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후배들을 도와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지요. 그럴 때마다 전화라도 한 번 드려야 하는데 생각하다가도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제 이름은 잊어버리셨겠지", "몇 십년이나 까마득한 후배의 전화 따위는 받을 시간조차 없으실 텐속시간에 일행마저 있어서 이야기할 시간이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수 년 세월을 넘어 여전히 함께 근무하는 듯한 착각이 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듯합니다.

일은 일대로 남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서도 잘난 동료, 못난 부하, 투덜거리는 사람들 또한 어우르고 다독여 제 자리를 찾게 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자리를 추천하시던 그 성정을 잘 알고 있기에, 하는 일이 보잘 것 없고 지위가 낮기에, 어리숙하고 모자랄수록 더욱 반가워하시던 그 품성을 닮고자하는 후배들이 있는 한 부장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분사 차장·2005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고

오현섭

세계의 시선, 이젠 여수로

지구촌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이젠 여수로 향하고 있다. 용광로보다 뜨거웠던 지난해 유치 과정에 이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여수 확정, 그리고 조금씩 늦춰지는 것으로 비쳐졌던 마스터플랜 작성. 여수시민들은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 나아가 국민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이뤄냈던 성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최근 스페인 사라고사박람회 폐막식장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깃발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장승우 조직위원장이 넘겨받았다.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속을 가득 채웠다. 뜨거워졌다.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BIE깃발을 받아들고 펼쳐 들었다. 다시 보고 또 봤다. 함께 자리를 지켰던 여수시의회 의장, 시 직원들은 감격했다.

이 깃발 인수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박람회 공식 개최지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매일 매일 여수시청에서 이 깃발을 보며 더욱 담금질을 해야 할 동료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눈이 이곳에 쏠릴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팔뚝에 힘이 갔다. '가진 자는 늠름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BIE깃발을 가졌다는 물리적인 현상과 함께 '이젠 누군가가 아닌 나와 우리가 이 깃발 아래 뭉치고 화합해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자긍심이 저절로 생기는 순간이었다.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세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만큼 세계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와 내용은 엄청나다.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로 가졌던 노하우를 여수세계박람회에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며칠간, 사라고사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박람회장을 들른 일행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보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일종의 합의가 일어났다.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박람회장과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가 자연스레 나왔다.

박람회의 주제와 내용은 조직위원회가 준비할 몫이라면 여수시와 시민들은 관람객들이 '마치 고향집에 들르러 온 것처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박람회장 출입구에서부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자원봉사,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안내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여수시와 시민들은 이와 맞물려 '내가 먼저 퍼스트' 운동과 자원봉사자 교육, 엑스포 아카데미, 클린 수 데이 활동 등에 보다 적극 나서는 등 내실있는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국민과 정부의 전폭 지지와 함께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화합과 열정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친절한 여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매진할 것이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전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행정역량을 시험하고 시민들의 친절을 전국에 펼쳐 보일 계획이다. 선수와 임원은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친절한 여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에서 오는 10월 만납시다.

〈여수시장〉

無等鼓

앞쪽형 인간

몇년 전 직장인 사이에 일찍 일어나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아침형 인간'이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당시 '아침형 인간'은 이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당기간 유행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앞쪽형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펴낸 '앞쪽형 인간'이 인터넷 서점의 자연과학 부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충동이나 욕구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앞쪽 뇌를 점점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쪽 뇌의 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뒤쪽 뇌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반면 앞쪽 뇌는 뒤쪽 뇌에 저장된 정보를 종합 편집한다. 행동을 결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고차원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쪽형 인간은 자기 의견없이 대세를 좇는다. 또한 문제해결이나 결정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유형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형이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앞쪽 뇌의 역할에 좌우된다. 앞쪽형 인간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틀을 깨는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 또 모니터링 능력이 있어 외부보다 내부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함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유형이다.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제시해준다. 평소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앞쪽 뇌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많이 걷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앞쪽형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앞쪽형 인간'이 된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

파충류 애완동물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가정에서 강아지·고양이는 물론 햄스터·거북같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른다. 요즘은 도마뱀·이구아나, 심지어 뱀을 기르기도 한다. 이같은 애완동물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기른다.

하지만 얼마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애완용 거북 중 13%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살모넬라균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거북은 배설물을 통해 살모넬라균을 배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오랜 시간 키우다보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인체에 유해한 애완동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의사항을 적극 알려야 한다. 또 지금처럼 아무데서나 희귀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 미국처럼 위험성이 높은 애완동물은 소유 허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면허를 취득한 뒤 기르도록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임신성 당뇨 급증 … 규칙적 운동·음식 조절 중요

당뇨가 암보다 무섭다. 이유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쉽게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고통을 주며, 경제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당뇨는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그동안 남성병인줄 알았던 당뇨가 요즘은 여성들에게도 많다.

직장 동료가 임신 8개월인데 얼마 전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다.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것 이외엔 가족력도 없어 너무 의외였다는데 임신 탓에 당뇨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임신을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신성 당뇨 대부분은 나중에 실제 당뇨로 이어진다고 하니 더욱 염려스럽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에 따라 복부비만이 늘어나 당뇨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향옥·광주시 남구 방림2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